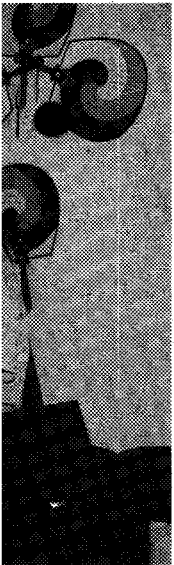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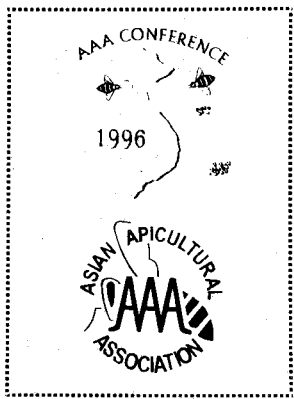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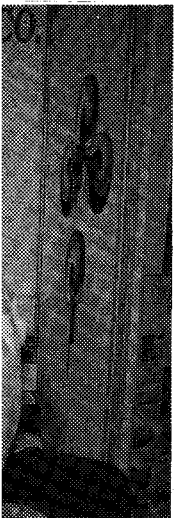


▶본협회·양봉과학연구소 코너를 찾은 관람객이 한국산 소초광과 하이브틀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 장영덕 박사

▶한국관의 「꽃샘벌꿀농원」이상갑 원장(본협회 이사)



◀베트남 VTV가 한국관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취재하고 있다.

제3회 아시아양봉대회 한국참가단 한국양봉 위상 드높인성과

제3차 아시아양봉대회(AAA)가 지난 10월6일부터 10월10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하여 24개국에서 350여명의 양봉관련 학자들과 양봉가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각국의 양봉산물 전시회도 함께 열려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꿀벌생물학, 양봉기술, 양봉산물과 유통, 꿀벌과 화분매개, 양봉산업 및 꿀벌의 질병 등 6개분야에서 총 10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계기사 3면 참조>

첫날 총회 개최식에서 AAA 회장 사카이(Sakai) 박사의 개회사에 이어 베트남 농업과 농촌진흥부 「구엔 콘 탄」장관의 환영사가 있었고, 특히 베트남주재 네델란드대사의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역설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대회에 한국에서 참가한 규모는 본협회가 구성한 21명을 비롯해 학계, 양봉조합장, 봉우회원 등 38명의 인원에 달했다.

본 협회서는 이번대회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만큼, 과거 참전국이란 국가 위상을 고려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과 많은 준비로 참석했다.

그래서 한국의 양봉산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데 필요한 전시관 2부스(코너)를 확보하고 그중 한 코너에 「꽃샘벌꿀농원」(대표 이상갑)과 「골든농산」(대표 여인명) 두 업소가 들어선 양봉산물을 전시했으며, 또 다른 코너에는 본협회와 양봉과학연구소 합작으로 양봉기자재, 도서출판물, 사진자료들을 전시해 한국의 양봉 종합전시관 규모를 갖췄다. 그외에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배려하여 2002월드컵과 한국관광 포스터들을 현관의 빈공간을 가득 채움으로써 한국전시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홍보효과를 나타내었다. 심지어 베트남방송 「VTV」는 전시규모가 큰편에 든 맞은 편의 중국관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한국관을 집중 취재하기도.

한국관을 찾은 방문객들의 관심대상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동남아권 양봉가들은 양봉산물보다는 양봉기구(하이브틀 등), 호주권의 방문객들은 상품포장과 특히 아카시아꿀과 혼합식품인 호박꿀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폐막날이 가까워서는 한국대사관에 알려져 베트남주재 기업체 관계자와 대사관 직원 등 교민들이 대거 방문해 전시상품 전람이 판매처분 되었다. 또 현지 몰사자들이 곤란해서인지 교민들은 전시된 한국관의 홍보물 자료들과 문구기자재까지 차후 현지 전시자료 재료로 쓸터이니 남김없이 인계해 달라는 성화에 마지막날의 한국관은 문전성시를 이뤄 주위로부터 부러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전에 경험치 못했던 교민들과의 협조관계로 짐가볍게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국제행사 참가때 참고할 점이었다. 그러나 국제행사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우리는 일본사람들처럼 국제 소통언어 영어가 짧아 전시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우건석·장영덕 박사님 등 학계 지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절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한편, AAA 창설때부터 한국관계 책임을 맡아 맹활약을 펴 오신 우건석 박사는 이번 총회에서 꿀벌생물분과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첨단기술의 밀 양 소 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웅봉저소초,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 봉산물
- 봉기구
- 종봉

밀 양 양 봉 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 영 순

백화점 전용 벌꿀 수매

국산 아카시아꿀
천연 봉개상태로 채취된 것
... (자연숙성 수분 20% 이하)이면
물량 다수에 관계없이
최상의 조건과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97년산 국산 아카시아꿀 계약수매 접수합니다.

천왕산양봉원

천왕산양봉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장 춘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25-21

연락주십시오 (사무실) 0599-31-8303(Fax겸용)

(작업장) 0599-31-7418

(야 간) 0599-33-8931